

전국 유일 초광역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유치 막판 온힘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대통령실서 이진복 정무수석 만나 당위성 피력 광주시 AI 2단계 사업·전남도 의과대 설립 요청...내년 국비확보도 총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유일 초광역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펼치고 있다.

양 사·도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광주·전남 유치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양 사·도지사는 "지역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춘 광주·전남을 반도체 특화단지(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사·도지사는 특히 광주·전남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점과 부자·용수·교통·전력·인재 공급 기반을 모두 갖춘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날 강 시장은 하반기 본격 운영을 앞둔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개관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한민국이 인

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넸다.

김 지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건넸으며, 의료현안협의체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의대 없는 지역(전남)' 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도지사는 또 복지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2024 하반기)에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 반영 및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지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및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별도 설계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주 내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국회를 찾아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만 3명의 장관을 만나 전남의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지자체 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김 지사께서 법무부를 찾아준 인연으로 전남을 찾아 현안들을 살피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22년 8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및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넨 바 있다.

김 지사는 2022년 8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및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넨 바 있다.

김 지사는 2022년 8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및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넨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옴크스 감염관리지역 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와 옴크스 감염관리지역이 15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에 옴크스 감염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3 국토대전 포스터에 광주는 뺨 뚫렸다

국토부, 논란 커지자 수정해 게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 시와 울릉도·독도가 빠진 지도 이미지가 실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포스터를 수정해 다시 게시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남부터 오는 20일까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민참여 투표'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에 홍보포스터를 게재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와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와 설계사·시공사 등을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꼭꼭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작품을 공모해 국민투표를 진행중이다.

투표 독려를 위해 제작된 홍보포스터에는 안내글과 함께 수많은 점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지도가 삽입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륙지역인 광주만 뺨 뚫려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외주업체 실수"라고 해명한 뒤, 곧바로 수정된 이미지를 게재했지만 항의가 끊이지 않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국비 확보활동자 서울 출장길에 올랐던 강기정 광주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토부 행사 포스터에 독도와 울릉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랑 광주는 구멍을 뚫어 아예 지도에서 사라졌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국토부에서 사과하고 정정했기에 다행이지"라며 서운함을 삼킨 뒤 "광주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외주업체 실수"라고 해명한 뒤, 곧바로 수정된 이미지를 게재했지만 항의가 끊이지 않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국비 확보활동자 서울 출장길에 올랐던 강기정 광주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토부 행사 포스터에 독도와 울릉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랑 광주는 구멍을 뚫어 아예 지도에서 사라졌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국토부에서 사과하고 정정했기에 다행이지"라며 서운함을 삼킨 뒤 "광주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지도에서 광주와 울릉도·독도가 빠진 국토교통부 행사 포스터. /연합뉴스

광주시, 시청사 전기차 급속충전기 개방

100kw 공용 급속충전기 4기...시중보다 평균 20% 저렴

광주시는 "시청사를 찾는 시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기 4기를 공용으로 추가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시청회동 주차장에 설치된 업무용 노후 완속충전기 35기를 교체하고, 이중 10기를 시민에게 유료 개방한 바 있다. 급속충

전기는 1시간 이내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간이지붕이 설치돼 우천 때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주차폭도 크게 넓혀 전기화물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보조사업자(㈜이지차저) 회원으로 가입하면 ▲급속충전기 kw당 320원 ▲완속충전기

168원으로, 시중보다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충전 때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30분 동안 면제되고, 이후에는 50% 감면된다. 또 오후 7시 이후부터 오전 7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민이 자주 찾는 월드컵경기장 등 79개소에 226기의 충전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는 한전과 협업을 통해 주택가 주변 노상주차장에 '전주거차형 충전기' 19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전요금은 보조사업자(㈜이지차저) 회원으로 가입하면 ▲급속충전기 kw당 320원 ▲완속충전기

/박진표 기자 lucky@

"전국체전, 전남에서 열립니다"

전남도, 4개월간 홍보열차 운영...객실 모니터에 홍보영상도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도민만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남도의 본격적인 홍보전이 시작했다.

전남도는 16일 "온 국민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장애인체전' 전국적 홍보를 통한 분위기 고조를 위해 4개월간 '전국체전 홍보열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 선수단과 관람객이 모이는 전국체전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 30만 명이 넘게 오가는 주요 기차역과 고속열차에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KTX-산천 1번 10칸을 '전국체전 홍보열차'로 지정하고 양 측면 전체에 홍보 디자인을 입혀 열차 이용객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열차 곳곳에는 전국체전 공식 마스코트인 '생명과'와 '오뎀이' 그림과 '화합과 감동의 스포츠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담았다.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는 KTX 70대와 SRT 32대의 객실 모니터에 전국체전 홍보영상 올려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열차는 13

일부터 4개월간 하루 360회 운행하며 용산역, 수서역, 대전역, 목포역, 부산역 등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 약 30만명에게 홍보영상을 통해 전국체전을 알린다. 이밖에 ▲용산역, 수서역, 부산역 등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홍보 ▲목포역, 광주송정역,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등 호남 관문인 주요 기차역 내 전국체전 홍보화면 설치 ▲주요 기차역 홍보 배너·홍보전단 비치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체전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각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문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경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광주광역시생애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공고 제2023-02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3년 광주광역시생애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건
나. 견학일정: 2023년 09월 11일 ~ 09월 22일 이내
다. 견학기간: 6박 8일 (견학노선에 따라 적정 조정하기 바람)
라. 기초금액: 90,000,000원
마. 견학인원: 총 13명 (※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바. 입찰금액: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수
사. 견학방문지: 필수지점3개소(상대립지)+여행사 추천 견학지 (국적기/직함으로 할 것) / 방문예약필수

국가	도시	필수 견학방문시설	비고
이탈리아	밀라노	como 매립장.	
스위스	취리히, 베른	KANTON 매립장, 베른 시청환경국 방문.	

2.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 관공진행명 제4조 및 동행시행명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받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자이어)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단일여행업 알선 용역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업체 (실적증명 제출바람)
다. 입찰 참가전 반드시 현장 설명을 들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명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평가 및 입찰금액 평가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방법은 현장설명 시 안내함.
나. 점수 합이 동점일 경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우선시하며, 모두 동일 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현장 설명 일시: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4:00
5. 제안서 제출 및 입찰금액 투찰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14:00
6. 개찰 장소: 광주광역시생애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실
7.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 광주광역시생애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 062-674-2051
※ 모든 일정 및 시간은 여객 시 등록 입찰을 기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의체에 문의바람.

202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생애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